

보람있는 간호

한 태 등 (연대교수)

간호 사업은 고되고 힘든 일이나 없을 수 없는 일이며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을 자기의 지상의 사명으로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은 과학, 의학, 심리학 등을 뛰어 넘은 그 무엇을 가진 특이한 학문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의사도, 심리학자도 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한 분야이므로 그 독특한 사명을 개발해 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간호원은 그가 받는 물질적 보수로 볼 때 노력의 대가도 제대로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인데다가 업무 시간 면에 있어서 밤낮도 똑 봉사하거나 밤을 새우기까지 해야 하다 보니 일반 사회적인 생활에서 점점 소외되게 된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위축되게 되므로 특수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역을 계속할 만한 용기와 긍지를 갖기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 교육에 있어서는 기술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마음 깊이 명확하게 느끼는 '사명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근래에 와서 간호학에서는 환자의 사회 및 가정적 배경, 그가 지나온 과거 등을 참조하여 그 환자에게 전인적 간호를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간호학은 사회학과 심리학등을 도입하여 환자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학문을 도입했다고 해서 간호학의 귀하고 독특한 입장을 저버릴 수는 없다. 간호학은 역시 간호학의 소임이 있으며 다만 그

소임을 수행하는 때 간접적으로 사회학등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간호원이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들을 보조로 삼아 이것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때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간호학에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간호학은 이런 학문으로만은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환자의 병이 경병일 때는 건강의 결여라고 할 수 있지만 중병일 때는 단순히 건강의 결여 상태가 아니라 건강할 때와는 다른 어떤 존재로 변해 버리기 때문이다. 마음이 약해져 어린 아이와 같게 되기도 하고, 혹은 건강할 때 가졌던 자신이 없어져 행동을 하는 때 자신이 없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과 생활도 질병의 상태에서는 공포에 질려 못하게 되기도 한다. 예컨대, 두뇌를 수술한 환자를 보면 수술 후에 과거를 완전히 망각하여 자기가 왜 병원에 왔는지 혹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몰라 하루에 수십번 반복하여 묻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말이 더듬어지고 동작이 어둔해져 비참하게 된 자신의 형편을 보고 비관하고 자신을 잃게 되어 전혀 다른 종류의 성격을 지니게 되기도 한다. 평소에는 그렇게 향기롭게 느끼던 참기름을 지방질이라 하며 독약이나 되듯이 먹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질병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는 참으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환자가 되어 보기 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존재로 돌변

특집 참 간호

하게 된다. 간호원은 환자를 보살피·주는 사람으로 학문만으로는 그들을 바로 보살피 줄 수 없다. 학문을 넘어서서 그 무엇을 더 가져야만 비로소 환자를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호원의 기술에 더 보태어져야 할 것은 바로 인간애다. 이 둘이 결합되어 환자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례를 든다면, 대수술을 하자면 방광에 고무 튜브를 넣어야 한다. 그것을 넣으면 요도에 심한 통증이 오게 된다. 그 통증으로 인해 방광 근육이 긴축되어 정상적인 배뇨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소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환자의 두 다리를 침상 옆으로 내리게 하고 상체를 들어 간호원에게 거대게 하면 이상하게 소변이 풀려나오게 된다. 이것은 첫째로 생리학적으로 그 자세가 소변을 재촉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학적 지식에서 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것은 사람이 몸을 거대게 될 때 어딘가가 어머니의 품안에 안기는 듯한 안정감과 신뢰감이 생겨 그 고통으로 생겼던 반사 작용이 잠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는 병의 상태와 정상 상태 사이에 불연속의 심연이 있다. 이것은 기술만으로는 건너지 못할 심연이다. 이것을 뛰어 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데 환자의 상태에서는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없다. 흔히 우리는 환자를 보고 투병해서 병을 이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에 불과하다. 이때에는 완전한 신뢰성과 인간애로서 그를 도와 그 고통의 심연을 뛰어 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질환에 건강한 상태로서 건너 가는 것은 사선을 뛰어 넘는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한 때

그것을 간호원이 줄 때 환자는 점점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어느 환자가 병원에서 큰 뇌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머리뼈를 떼어 버리고 그 대신 머리 살갓으로 그위를 덮었다. 수술에서 오는 통증도 있었지만 뇌가 노출되었다는 의식에서 거기에 대한 과민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나니 그 상처에서 나는 비듬에 머리가 가렵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해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때 같았으면 머리 감는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지만 그에게는 머리를 감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뜨거운 물이 뇌에 들어가 뇌가 지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그러나 간호원이 먼저 두 손을 머리 씻을 물에 넣어 주어 환자로 하여금 그 물의 온도가 체온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 다음에 그 상처 옆의 부분을 물로 적시기 시작해서 그 다음 환부를 씻겨 가니 비로소 안심하고 머리를 씻을 수 있게 되었다. 한달만에 머리를 감았을 때 그 상쾌함은 말로 할 수 없었다.

환자가 질병에서 회복되어 갈 때 그 환자의 즐거움은 곧 그를 간호해 준 간호원의 즐거움이며 그 간호원의 지상의 보람이라고 여겨진다. 비록 밥집을 못 자고, 비록 이 형식적인 사회에서 소외될 망정 인간을 돕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은 비할 바가 없는 것이리라. 이런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간호 사업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직업으로 여겨질 것이며, 거기에서 생의 최고의 보람을 찾게 될 것이다.